

<서평>

Sin: a History

(G. A. Anderso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김선종*

1. 들어가는 말

죄는 무엇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인가, 아니면 18세기 계몽주의의 아들 니체의 주장처럼, 인간의 자율성을 도말하는 졸렬한 유대인의 감정인가? 인류 역사를 죄의 역사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죄’는 비단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 문학, 또한 철학 일반이 해명하려는 인간 본질에 관여한다.

이미 30년 전 튀빙엔의 야노브스키(Janowski)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죄의 주제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루었고,¹⁾ 죄의 개념을 연구하는 후학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할 기초적인 연구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다.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앤더슨(Anderson)은 최근 새롭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야노브스키의 권위적인 연구를 자신의 책 어느 곳에서도 인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연구자의 불성실함에서 비롯하지 않고, 이전 연구자와는 달리 저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연구 방법론에 기인한다.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야노브스키가 제사장 문헌에 나타난 죄의 문제를 신학적이고 종교학적인 관심에서 다루고 있다면, - 이번 경우 제목을 통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 앤더슨은 철저히 언어적이고 문헌학적인 관점에서 죄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추적한다. 저자를 따르면, 죄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인간이 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사실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곳의 짧은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평하려는 연구서는 빛으로 은유되는 죄 개념의 근원을 제 2 성전기 및 그 이후 시대의 문헌을 통해 밝히고, 이러한 빛으로서 죄의 개념이 부차적으로, 그러나 필연적으로 파생하게 될 구제 혹은 자선(alms)이 죄 및 구원에 대해 가

* 한남대학교 전임강사, 성서학.

1) B. Janowski, *Sühne als Heilsgeschehen: Tradi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Studien zur Sühnetheologie der Priesterschrift*, WMANT 5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2).

지고 있는 관계를 분석한다.

2. 1부

저자는 죄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세 부분을 통해 기술한다. 제 1부 (Introducing the Problem)에서 저자는 히브리 성경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은유(metaphor)를 소개하며 자신이 죄의 주제를 새롭게 제기하게 된 연구 동기를 밝힌다.

우선 저자는 제 1부의 첫 장 ‘죄의 개념’(1. What is a Sin?)을 통해 히브리 성경에 나타나는 죄의 세 가지 은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2. A Burden to Be Borne에서 자세하게 논술됨), 둘째로, 닦아야 할 얼룩, 마지막으로 갚아야 할 빚(3. A Debt to Be Repaid)이다. 저자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다메섹 문서(3:9-12)를 읽으며 죄를 표현하는 은유가 제 2 성전기를 전환기로 하여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제 2 성전기 이후 신약성경(마 6:12; 18:23-24; 롬 6:23)과 유대교의 랍비 문학, 더 나아가 아람어 및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 빚으로서의 죄의 개념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짊어져야 할 무엇(레 16:22), 혹은 씻어야 할 얼룩이라는 용어가 고전적인 성서 히브리어(CBH) 작품에서 죄를 전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들에 비해 ‘빚’은 죄를 표현하는 낯설고 새로운 이미지에 해당한다. 저자는 쿰란의 다메섹 문서에서 죄가 이처럼 새로운 관념인 빚으로 등장하는 사실에서, 이스라엘 언어의 역사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착안한다. 즉, 일반적으로 고전적 성서 히브리어의 어법을 모방하는 쿰란 문서의 기술 방식²⁾과 달리 아람어 표현이 드러난 것은, 단지 새로운 문학적 표현 양식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 민중이 예전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빚으로서 죄의 은유의 변화는 단지 제 2 성전기 이후의 문헌에서 양적으로만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짐으로서의 죄를 표현한 본문들(레 5:1; 24:15 등)이 아람어 타르굼에서 ‘빚지다’라는 경제 용어로 번역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짐/무게의 은유로서 죄라는 표현이 신약성경 및 랍비 시대 히브리어에

2) 성서 히브리어와 랍비 시대 히브리어를 연결하는 언어로서의 쿰란 언어의 특징을 위해서는 참조, Angel Sáenz-Badillos,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 F. Elwolde,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30-146. 이 책에 대한 우리말 서평을 위해서는 참조, 박미섭, “Angel Sáenz-Badillos의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Canon & Culture』 4 (2010), 277-285.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러한 표현이 ‘빛’으로 번역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죄의 개념이 페르시아 통치 시대(주전 538-333)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자는 분석한다.

3. 2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저자는 제 2부(Making Payment on One's Debt)에서 빛으로 은유되는 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다섯 개의 장(4-8장)을 할애하여, 제 2 성전기 시대의 문헌, 즉 성결법전, 제 2 이사야, 다니엘서 등의 성서 문헌과 주후 2-6세기의 랍비 문헌(미쉬나, 토세프타, 탈무드) 및 초기 교부들의 문헌에 나타난 빛으로서의 죄를 분석한다.

먼저 제 4장(Redemption and the Satisfaction of Debts)에서 저자는 보속 교리가 단순히 터툴리안을 위시한 교부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빛으로서의 죄와 이에 대응하는 상채(償債) 개념이 이미 제 2 이사야(40:1-2; 50:1)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죄가 빛으로 표현되는 아람어의 영향은 비단 언어적인 영향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갚아야 하는 보속의 교리를 산출한다. 즉, 제 2 이사야를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인데, 이들이 죄로서의 빛을 지게 된 자로 묘사됨으로 영적인 빈곤에서 기인한 노예(debt-slave)로 여겨지며, 포로기라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함으로 빛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빛을 저, 이러한 빛을 갚아내야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채무 증서(*štar hōb*)를 손에 들고 있는 냉정한 채권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해한 신학적 문제는 인간과 땅의 빛의 문제를 논하는 레위기 25장과 26장에서 계속해서 논의된다(5. Ancient Creditors, Bound Laborers, and the Sanctity of the Land). 이들은 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 운명체로서의 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운명을 빛의 문제와 관련시킨 점이 특이하다(레 26:43-45). 이스라엘 백성과 땅이 자신의 이웃과 하나님께 빛을 졌다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백성과 땅의 빛을 면제하는 분으로 등장하며, 이는 구약 주변세계에서 새롭게 즉위하는 왕이 비정규적으로 면제년을 선포하는 안두라룸(*andurārum*) 제도와 유비 관계에 있다. 레위기 25장과 26장의 연장선 상에서 제 6장(Lengthening the Term of Debt)은 레위기 26장에 나타난 포로 예고에 관한 본문이 예레미야 26장, 다니엘 4장, 역대하

36장 및 콤란문서(Aphocriphon of Jeremiah, Words of the Luminaries)에서까지 인용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레위기 25-26장이 제 2 성전기 문헌에 끼친 지대한 영향을 보여준다. 이들 본문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끔찍한 포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다음 단락(7. Loans and the Rabbinic Sages)에서 저자는 주후 1세기 팔레스틴에서 사용된 언어, 미쉬나 히브리어와 팔레스틴 및 바벨론 아람어에서 사용된 빛으로서의 죄의 용례를 살핀다. 이러한 랍비 유대교에서 죄가 상업 용어인 빛으로 은유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채무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학자들의 비판(H. Strack and P. 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h*, 6, Munich: Beck, 1924-61)에 대해, 저자는 Sifra(레위기에 대한 랍비 주석) 및 예루살렘 탈무드의 *Peah*편의 예를 들으로써 반박하고 있는데, 이들 문헌을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 빛의 1/100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기독교 성서학자들이 랍비 유대교 사상을 잘못 해석한 것을 비판하며 저자는 2부의 마지막 장(8. Early Christian Thinking on the Atonement)에서 신약 성서에서도 역시 죄는 빛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밝힌다(눅 7:41-43; 롬 7:14; 골 2:14 등). 계속해서 저자는 5세기 셈족 언어의 방언에 해당하는 시리아어로 저술 활동한 신학자인 성 에프렘(St. Ephrem)³⁾, 나르사이(Narsai), 사룩의 야곱(Jacob of Serug)의 문헌에 나타난 속죄 교리가 제 2 성전기 문헌의 여명기에 닿을 수 있음을 보이려 시도한다. 더 나아가 비록 빛으로서의 죄의 개념이 그리스어에서는 낯선 용례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스-라틴 문학에서 폐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예를 들어 입증한다.

4. 3부

제 3부(Balancing Debts with Virtue)는 죄가 이처럼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저자는 성경과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 빛을 갚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추적하고 있는데, 이는 개신교 신학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인 보시(almsgiving) 사상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3) 성 에프렘에 관한 우리말 연구를 위해서는 참조, 이수민, “마르 에프렘의 사마리아 여인과 헤라클레온 단편들”, 『신학전망』 161 (2008), 93-115; 이수민, 『마르 에프렘의 낙원의 찬가』 (의정부: 한남성서연구소, 2010).

제 9장 ‘보시로서의 구속’(Redeem Your Sins with Alms)에서 저자는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상징어 - 무게/짐, 열록, 빛 - 가운데, 빛의 은유가 오랜 세월 동안 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그의 상대어인 이익 혹은 이윤 (*zēkūt*)의 용어가 랍비 시대 히브리어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즉,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의 빛을 갚아야 하는데, 이러한 빛을 갚는 행위는 결국 경제 용어로 표현하면, 남을 구제함으로 빛을 갚고 더 나아가 이윤을 남기는 것에 해당한다. 저자는 이러한 랍비 유대교의 사상이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히브리 성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다니엘 4장을 따르면 죄를 지은, 즉 빛을 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약한 자들을 구제(*šēdāqāh*)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청산해야 한다(단 4:24; 참조, 4Q 424; 3QWisd 3:7-10). 계속해서 저자는 자선을 베풀면 죽음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잠언의 구절을 분석한다(잠 10:2; 참조, 토비트 4:9-11). 이러한 사상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타나는데, 가진 재산을 팔고(마 19:16-30; 눅 12:19-21)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 6:19-20; 참조 집회서 29:9-13)는 그의 가르침은 이러한 구제와 보속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 성전 제사가 폐하여진 이래, 유대교 문헌에서 구제는 제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전 제단이 하나님께 제물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구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행위이며(레 19:5-10; 집회 7:29-36; 35:1-2), 예수님 역시 가난한 소자에게 행한 자선이 곧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마 25:40)하신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대 교부들 역시 보시가 단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랍비 문헌에서는 유일한 계명(*ha-mitsvah*)으로까지 격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사고는 자연스럽게 10장에서 다루어지는 ‘행위로서의 구원’(Salvation by Works?)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종교개혁자들과의 논쟁을 상기시킨다. 이는 피상적으로 구제, 보시, 선행을 통한 속죄(atonement)의 가르침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개혁가들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저자는 제 2 성전이 이후 나타난 선행에 의한 구속 사상이 단순한 율법주의적 사고가 아님을 변호한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역시 올바른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행위에 대한 비판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올바른 행위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주후 5세기 시리아 신학자 에프렐의 가르침을 인용하는데, 그에 의하면 선행은 단순한 공로(work)가 아니라 믿음

(faith)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다. 에프렘과 퀘를 함께하는 사상은 어거스틴에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땅을 바치고 하늘을 얻으라고 말하고, 적게 드리고 영원한 보상을 얻으라고 함으로써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저자로 하여금 본서의 마지막 두 장을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11. A Treasury in Heaven)와 하나님의 성육신(12. Why God Became Man)의 의미를 설명한다. 11장에서 저자는 보시(almsgiving)가 랍비 문헌(미쉬나, 토세프타, 탈무드)에서 ‘그 계명’으로 규정됨으로써, 모든 율법을 지키는 대표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자선 행위는 비단 유대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저자는 논증한다. 즉 마가복음 10:17-31에 나타나는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수난을 예고하는 자리(막 10:32-34)의 빛에서 해석하여, 이러한 구제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그 십자가를 지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보시 행위는 땅에서의 선행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일맥상통한다.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제 12장에서 저자는 안셀름의 ‘신은 왜 인간이 되었는가?(*Cur deus homo*)’⁴⁾라는 저작을 통해 구제 사상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파헤친다. 11세기 켄터베리의 주교 안셀름은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성육신 사상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인간의 죄, 즉 죄의 빛을 갚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앤더슨은 이러한 사상이 안셀름 자신이 고안해 낸 사고가 아니라 이미 제 2 성전기 시대 성서에 나타난 사상임을 강조한다.

죄와 속죄, 빛과 보속은 끝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저자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보상한 것은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과연 ‘어떻게’ 빛을 갚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이 점에 대해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처벌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 보속했으며 이러한 그리스도의 보속은 모든 인류의 빛을 갚을 정도로 그 효력이 유효했음을 랍비 문학에 나타나는 이삭의 번제 해석과의 유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인간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행하는 보시 행위가 하나님이 인류의 빛을 갚기 위해 행한 예수의 보속 행위에 비견되는 것으로 여긴다.

4) 우리말 번역을 위해서는 안셀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은재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을 참고하라.

5. 평가

저자는 언어적인 차원뿐 아니라 신학의 측면에서도 자신의 탁월한 통찰력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본서에서 죄의 개념의 변천사는 성서 히브리어, 성서 아람어, 타르굼 아람어, 쿨란 히브리어, 랍비 시대 히브리어 등의 제반 언어적 지식을 바탕으로 추적된다. 언어는 존재의 집(Das Haus des Seins)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언어가 단순히 특정한 신학 사상을 전달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 사상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저자는 잘 보여준다.

물론 저자의 저서를 읽고 분석하고 비평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저자의 사고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 것이고, 필자도 이러한 경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으레 다른 학자의 연구를 평하는 작업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귀결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저자가 제 2 성전기의 문헌을 논하면서 성결법전과 제 2 이사야서를 논할 때 어떠한 언어학적 근거로 이들을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후기 히브리어 작품(LBH)으로 인정했는지 분명하게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지점에서 성서 본문에 대한 역사비평적 접근 방식과 언어학적 접근 방식이 혼재해 있지는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론에 관한 비판 이외에도 세세한 사항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레위기 26:1-2에 나타나고 있는 ‘안식들’(Sabbaths)을 안식일뿐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길 때, 저자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저자 자신이 이 본문에 상응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본문으로 여기는 레위기 19:30의 안식일 관련 계명에서도 역시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안식들’ 역시 안식년과 희년을 함의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비판은 저자가 그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선사하는 엄청난 언어적·신학적 통찰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오류 혹은 독자들과 달리하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우리들에게, 아니 적어도 지금 그의 저서를 읽고 비판하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간직해야 할 교훈을 남겨 주기 때문이다. 먼저, 빛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의 은유와 그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의 구제와 선행에 대한 가르침이, 단지 종교 개혁자들의 비판의 대상이라는 천박한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이다.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지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당시 거대한

교회 권력과 싸울 때, 선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그의 주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을 강조하는 성서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 참된 행함과 속죄 행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혁가들의 사고를 ‘반율법행위적’으로 단순히 규정하는 것은 그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리라. 둘째로, 저자는 서방 전통의 신학에 익숙해져 있는 일부 독자들에게 동방 신학, 즉 시리아 전통의 신학의 풍성함에 초대한다. 우리가 동방 교회의 신학 전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비단 교회사 혹은 교리적 동기에서만 이 아니다. 이는 성서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들 언어가 제 2 성전기 이후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히브리어 본래의 뜻을 비롯 흐릿하게나마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들의 문헌을 읽고 해석할 때,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전달되었을 예수 어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구약과 신약, 교회사 사이의 연구를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연구는 그 연구가 제시하는 문제와 문제제기에 대한 결과로만 평가되지 않고, 더 많은 통찰력과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연구의 결과물을 만나 저자가 이미 행한 고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인간의 창조 이래 펼쳐진 죄의 역사, 신앙의 선조들이 사용한 여러 언어들과의 만남, 그들이 죄로 가득한 현실과 행한 투쟁을 그들의 언어와 신학의 빛에서 다시 한 번 곱곰이 사색하려는 사람들은 이 책과 함께 조금 버거운, 그러나 투자하기에 결코 아깝지 않은 값진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Keywords)

죄, 무게/짐, 얼룩, 빛, 보속.

sin, weight/burden, stain, debt, satisfaction.

(투고 일자: 2011. 1. 19; 심사 일자: 2011. 2.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2. 25)

<참고문헌>(References)

- 박미섭, “Angel Sáenz-Badillos의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Canon & Culture』 4 (2010), 277-285.
- 안셀름,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은재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이수민, “마르 에프렘의 사마리아 여인과 헤라클레온 단편들”, 『신학전망』 161 (2008), 93-115.
- 이수민, 『마르 에프렘의 낙원의 찬가』, 의정부: 한님성서연구소, 2010.
- Janowski, B., *Sühne als Heilsgeschehen: Traditions- und religionsgeschichtliche Studien zur Sühnetheologie der Priesterschrift*, WMANT 5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2.
- Sáenz-Badillos, A.,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 F. Elwolde,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Abstract>

Book Review - *Sin: a History*

(G. A. Anderson,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9)

Dr. Sun-Jong Kim
(Hannam University)

Anderson begins his study by presenting that the metaphor on sin in the Hebrew Bible has changed since the Second Temple period. While its principal metaphors in the Classical Biblical Hebrew literature are the burden to be borne (Lev 16:22) or the stain to be wiped, the main metaphor on sin is represented as a debt (Isa 40:2) to be payed in the later period, i.e., in the New Testament (Rom 7:14; Col 2:14), the rabbinic literature, and the early Christian literature (St. Ephrem, Narsai). And this change of sin's concept is confirmed by the translation of the word 'burden' by 'debt' in the Aramaic Targum (Lev 5:1; 24:15). According to the author, the emergence of this new concept of sin as a burden derives from the influence of the Aramaic language in the Persian period (538-533 B.C). On the basis of this hypothesis, Anderson tries to unveil the relationship between sin as a debt and almsgiving as a crucial means of an atonement.

The author's interest is so wide as to range from the Old and New Testament, the Dead Sea Scrolls, the rabbinic literature to the Syriac theologians. However, he does not lose his sight any moment on the theme 'sin'. By trying to interpret sin and atonement in these wide perspectives, he makes the reader not to be isolated in a particular biased position. Anderson does not merely solve the reader's curiosity on the history of sin; he shows an excellent model how the exegete can draw the theological inferences out through the linguistic approach.